

01. 질문하는 수업 기본모형

질문하는 수업의 기본모형은 거의 모든 수업이나 대화 등에 기본이 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초기수업 단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변형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 모형은 실제로 해보면 매우 단순합니다만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함이 가지고 오는 대화수업의 묘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내용이나 독서 등에서도 내용에 따라 단순한 이 기법이 교사가 아이들을 발견해주고 반응해주거나 아이들끼리의 반응에 따라 깊고 넓게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업 깨우기

수업동기부여를 위한 도입 단계입니다. 보통 퀴즈나 게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이미 이러한 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업 깨우기에는 수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큼니다. 퀴즈도 게임도 단순 재미가 아닌 뇌를 깨우고 수업에 들어가게 하는 길목역할을 하면 좋겠지요.

학습자들은 경쟁을 좋아하고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집중되지 않은 수업시작일 때 쓰면 아주 좋습니다.

지난시간 키워드

지난수업에 배운 것을 키워드를 떠올리고 키워드와 관련된 말을 친구에게 설명하는 시간이면 복습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퀴즈나 게임 없이 수업 깨우기로 쓰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낱말들을 이용한 퀴즈나 게임도 좋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말 그대로 진도만 나아가는 수업에는 아이들이 익힐 시간이 없습니다. 학습은 배우고(學) 난 다음 익히는(習)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익히는 방법과 익힐 넉넉한 시간은 주지 않고 앞으로 달리기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개를 알고 와야 합니다. 학습지를 풀거나 학원에서 내어준 문제 등으로 확장된 것을 알고 와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배운 것만이라도 익히는 시간을 준다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수업목표는 쉽게 달성할 것입니다. 완전히 익히고 난 다음에는 다음을 받아들이기 그릇이 충분히 준비가 되므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익힌 것과 미처 익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만들기

지난 시간 배운 것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면 복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요. 배운 것을 익히는 시간이 극대화 될 수도 있습니다. 복습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배울 교과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든다면 이번에는 예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슬쩍만 읽어도 수업 내용을 이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것들이면 그 효과는 상상이상입니다. 성격에 따라 더 호기심이 가는 것, 혹은 더 알고 싶은 것, 혹은 알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의 개수를 조금 많게 하면 3강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맛보셨듯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단계가 될 것입니다.

수업내용을 질문으로 만들 때에는 예습의 효과, 그리고 책을 구석구석까지 읽어내는 효과,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단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업준비가 동기부여와 함께 잘 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짜과 이야기하기

시간을 정해두고 짜 토론을 해야 합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고 무작정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만든 질문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수업내용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 수업목표와 관련된 질문, 친구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꼭 알고 싶은 질문 등 다양하게 바꾸어서 선택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든 질문을 가지고 간단한 것은 짜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예습의 효과에서 수업내용숙지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수업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을 수업으로 다시 정리해보면서 배우는 단원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진도 나가야 할 때는 질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질문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말해주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의 단원은 짜과 이야기하면서 나의 경험과 이미 배운 내용들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더 깊게 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지요. 이런 수업과정에서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짜 토론을 한다면 가장 대화하고 싶은 질문을 골라서 하기도 하고, 교과 내용을 숙지해야 하니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교과 내용에 관련된 것을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져서 수업내용이 이미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 질문과 짜 토론을 통해 정리한 다음 상상이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등 관한 것들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론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질문들도 쓸데가 없거나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훌륭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찾는 열쇠들이거든요.

모둠에서 이야기 하기

짜 토론이 끝나면 그중 좋은 질문과 마음에 드는 토론을 골라 모둠토론을 해봅니다. 혹은 수업에 관련된 것들만 토론을 계속해도 됩니다. 짜에서 모둠으로 구성원이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짜과 이야기한 후 마무리가 된 것 같았는데 모둠에서 다른 팀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듣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가능하고 또 다른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배움이 일어나는 효과가 많습니다.

발표하기

모둠토론이 끝나면 미니보드에 좋은 질문을 한 가지씩 적거나 몇 개를 적어도 좋습니다. 모둠에서 나온 질문들을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조별로 발표자를 선정해서 각 질문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발표합니다. 다른 조에게 질문할 기회를 갖습니다.

정리하기

교사는 나온 질문들과 발표한 것들을 종합 정리합니다. 어떤 모둠이 학습목표에 가까운 내용들을 발표했는지, 어떤 모둠이 좋은 질문들을 했는지, 발표 방법은 어떠했는지, 좋은 발표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 중에 있었던 것들을 중간 중간 메모를 했겠지만 노트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마인드맵이나 비주얼씽킹 등으로 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메모는 좋은 학습자가 되거나 일생을 통해서 꼭 필요한 습관이므로 학습자들은 각자의 질문과 생각을 잘 정리하고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을 붙잡아 글로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7:2:1의 질문법칙

제가 원하는 것 중에 7:2:1의 법칙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관련된 것 70%, 교과서 내용과 관련되고 나와 관련된 것 20%, 그리고 아주 관련 없는 것 10% 정도로 점차 고정화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습자들에게 적용하면 오늘 배울 교과 내용이나 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나의 일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혀 뜬금없는 10%의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수업 시간에 다루진 못해도 질문노트에 차곡차곡 모인 것만 봐도 마음의 양식이 되거나 두뇌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간혹 시험기간에 지쳐 있거나, 시간이 비는 수업 시간에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해본다면 실제 교과수업에 더없는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질문하는 수업 확장모형

수업 깨우기 단계에서 퀴즈를 풀 때나 복습 단계에서 전 시간에 배운 것들을 빙고게임으로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업에서 아이들이 자료 찾기와 질문 만들기를 하고 짝, 모둠, 토론 등으로 수업진행을 합니다만 교사가 계획한 자료들이 다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더 깊은 내용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본모형과 수업모형 외에 수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과정을 교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의 특성을 잘 연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방식은 무엇일까?'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동화를 좋아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수업에서 개념을 가르칠 때 이야기로 풀어 가면 더 없이 좋은 것도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배움이 저절로 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수업기법이 없어

도 이야기꾼이 되면 수업진행은 무척 쉬워집니다.

이야기로 시작하기

전체적인 수업내용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해서 교사가 이야기해 주거나 꼭 가르쳐야 할 핵심내용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방식의 질문을 곁들여서 하면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립니다. 교사가 전해준 이야기와 보여주기 방식의 질문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질문 만들기에 들어가면 훨씬 더 몰입하게 됩니다.

보여주기 방식의 질문의 예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 아이들이 이야기로 만든 수업에 꼭 빠져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	보여주기 방식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 수칙을 배워볼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4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떤 능력을 가졌나요?
오늘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피자를 5명이 똑 같이 나누어 먹는 방법 은?

구체적인 예시 제시

교과 수업과 관련한 신문기사나, 예화, 교사의 경험담 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 이때도 보여주기 질문을 하면 좋겠지요. 교사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칠판에 적습니다. 적을 때 질문으로 바꾸어 적어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수업에 들어가면 이미 결론이 나 있기도 해서 더 확장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단어로 공부하기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찾아 적고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게 합니다. 어떤 이유로 순서를 정했는지 짝끼리 질문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함께 중요한 단어를 칠판에 적어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합니다. 이때 낱말 뜻을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지요.

아이들의 경험을 찾기

교과서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주제, 즉 학습목표를 파악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찾아 적어봅니다. 그리고 친구와 어디가 주제와 연관됐는지 질문하면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이런 때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념코치에서 다루었듯이 아이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교과 내용을 자기의 색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어 수업이라면 자기와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등장인물과 연결시켜봅니다.

국어는 실제로 통합적인 교과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이 함께 있지만 언어는 모든 것을 녹여내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재현하고 있지요. 인간 세상을 다루거나, 자연 현상을 다루거나 세상의 원리가 통하듯이 모든 과목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어의 어떤 시가 사회과목의 어떤 단원과 연관이 있는지, 과학과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과목과 과학과목의 연계, 미술과 국어,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과학 등 연결해서 하는 공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의 시각화된 내용과 역사적 사건 혹은 화가의 살던 시대를 공부하면서 교과내용을 통해 공부하거나 이야기식의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과목의 특성상 인간사회의 관계와 과학적 현상과의 관계를 서로 비교해보는 수업은 과학과 사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연관 지어서 이야기해보는 수업도 재미있습니다. 의외로 TV를 보지 않는 집들이 많아서 드라마 주인공을 연결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공통점이나 연관성 있는 것, 속성이 같은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연습은 재미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찾는 게 창의를 시작입니다. 수업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지요.

모둠에서 교사되기

친구 가르치기 모형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 혹은 사회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때는 모둠을 하거나 분단별로 친구교사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르치기를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주저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친구교사가 된 아이는 질문을 하는 친구에게 다시 질문해줍니다. 아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학생이 이해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로 설명하도록 질문해줘야 합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에 해결책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반 전체 아이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로 풀어서 적게 합니다. 그러면 학습의 효율성은 점차 커질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만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학습법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질문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탐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미나식 수업

수업내용이 어렵거나 가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때는 세미나식 수업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핵심 질문을 찾게 한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의 질문에 전체가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교사는 분위기가 흐트러

지지 않도록 적절히 감탄과 지지를 해주거나 학생들이 하는 말의 중심 개념을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칠판에 적은 질문에 대해 다 토론하지는 못하겠지만 칠판에 적음으로써 집중도를 높이고 하나의 토론이 끝나서 다음 토론으로 가더라도 다시 처음의 질문과 토론한 내용들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더라도 교사는 주저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의외로 활발하고 집중도가 높은 토론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강의

예습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 오거나,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보게 한 후 교사가 수업내용을 강의합니다. 10분 정도 강의를 한 후 아이들이 만든 질문으로 서로 강의 들은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찾아보면서 토론합니다. 교사가 설명을 했는데도 잘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질문에 체크를 하거나 혹은 따로 적어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이나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교사는 받은 질문을 다시 설명해주고 전체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03. 질문하는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

한국적 사고는 전체적이고 추상적이며 직관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숲은 잘 보지만 숲속의 많은 나무들, 꽃들, 풀들, 그리고 동물들과 곤충들이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숲을 숲이라고 이야기 해버리고 나면 그다음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숲’이라고 규정짓고 나면 그다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는 강점도 있지만 21세기에는 논리와 객관을 갖춘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숲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숲의 이미지와 특징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것에도 기인합니다.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이야기들은 크게 할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단어 하나로 일반화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에는 약합니다. 논리적이거나 구체화하려면 경험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의 경험에서 또 연결되는 많은 개념들은 끝없는 호기심과 이야기들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적 사고는 하나의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리가 없어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잘 안됩니다. 하나의 단어가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상대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질문하는 수업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첫 시간에 대부분 놀라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이렇게 많은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랍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2가지 때문에 ‘질문’이라는 경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경험을 해보니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론)로 배운 것을 직접 경험을 하거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증명해보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말들은 토론할 때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각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해지지요.

한국적 사고의 갈등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왜 못 알아 듣나라고 하는 답

답함은 나만의 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수업 어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재미있었어요” 많이를 경험하시죠. 왜 같은 답만을 할까요? 그 재미라는 말을 똑 같이 썼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상황이 그려진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참 재미가 있었구나. 그런데 어떤 것이 재미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내가 생각하는 재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었어요’라는 말에 우리는 금방 실망합니다.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는데도 서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논리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토론하는 수업이 필요한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기위해 개념을 정리하고 논리를 견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좋은 자료를 찾는 방법, 감정에 앞서는 건강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아이들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할까? 라는 질문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여야 질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책을 읽기만 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도 생각의 폭이 좁은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질문과 대화를 통해 나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 수업이 성공하려면 아이들의 풍부한 경험, 깊은 독서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연결할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아야한다는 것이지요. 교사들이 수업현장에서 부딪히는 큰 문제가 처음에는 재미있어하지만 점점 가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의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더욱 두드러집니다. 수업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한 학습자들의 기초지식의 바탕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다양한 영역과 연결 시도하는 창의성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교사도, 아이들도 충분히 수업시간에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부모와 교사는 이런 것을 교육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공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시간에 기질에 따라 생각의 구조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에 앞서는 한국적인 시각 즉 전체를 보는 통찰, 하나의 말에 이미 많은 것을 내포하는 언어습관, 구조화보다는 직관에 가까운 사고 등을 미루어 보고 아이들의 언어습관을 잘 살펴본다면 교사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가 명확해 질 것입니다.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전략 몇 가지만 익혀 놓더라도 학습자들인 학생들에게 수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자극할 수가 있게 되지요. 교사의 질문은 학

습자들이 얕박한 생각에서 깊은 사고의 균형과 편향적 사고방식의 한계 극복 그리고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사고의 방법을 자극하는 좋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교사의 기본적인 질문전략	
질문의 종류	질문예시
분석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니? - 구체적으로 말을 해 본다면? -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본다면? -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비교질문 공통점 차이점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번에 배운 것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 한국화와 서양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 역사와 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상상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 만약에~~
감정이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 네가 만약 소화기라면? - 만약 북극곰이라면?
분류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을 찾아 비슷한 것끼리 나누어 볼까? -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 -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까?
연결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내용은 지난번에 배운 단원과 뭐가 비슷하니? - 예전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지? -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 중에 관련 있는 것들이 있을까? - 읽은 책 중에 연관되는 것은 없을까?
적용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과 관련된 일들 중 기억나는 것은 없을까? - 친구의 생각 중에 새롭게 배운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자극하는 교사의 질문은 뒤에서 다룰 개념로드맵과 사고방법,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학습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갇힌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라도 자꾸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교사의 사고확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수업내용을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업외의 엉뚱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 경우에도 수업 속으로 이끌어 올 수가 있습니다.